



열 여덟살 앳된 여고생이었던 이미자는 HLKZ 방송국(TBC 방송국의 전신)에서 열린 노래자랑에 나가 1등상을 거머쥐었다. 그게 1958년의 일이었다.

이듬해 '열 아홉 순정'을 발표하며 정식 가수로 데뷔한 그녀는 반세기 동안 전국민의 애환을 어루만진 국민가수의 자리를 잃지 않고 있다.



'동백아가씨' 전설에 '섬마을 선생님' 활짝

'엘레지의 여왕' 이미자 데뷔 50주년 콘서트 4월 25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엘레지의 여왕' 이미자가 가수 데뷔 50주년을 기념하는 대형 콘서트를 마련했다. 오는 4월 4일 세종문화회관을 시작으로 올 12월까지 전국 16개 도시 투어에 오르는 이미자는 지방 공연의 출발점으로 목포를 선택했다. 4월 25일 오후 3시~7시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세상과 함께 부른 나의 노래 50년-전설(傳說)'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국민가수' 이미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또 다른 출발을 알리는 무대다.

데뷔 곡 '열아홉 순정'으로 주목을 받았던 이미자

'동백아가씨'를 발표하며 최고 자리에 올랐다. 이후 작곡가 박춘석과 짝을 이뤄 '흑산도 아가씨', '섬마을 선생님', '가리기 아빠' 등을 잇따라 탄생시키며 '국민가수'로 떠올랐다. 시련도 있었다. '흑산도 아가씨' 등이 '왜색'이라는 이유로 금지곡으로 묶이면서 정말 부르고 싶었던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 과정을 꽃피기 견뎌냈고, 50년 동안 560장의 앨범, 2천여곡의 노래를 발표하며 한국 대중음악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그녀의 50년 노래 인생을 곁에서 지켜본 김동건

아나운서의 사회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 이미자는 '가리기 아빠', '여자의 일생', '노래는 나의 일생', '섬마을 선생님' 등 자신의 히트곡과 '서울야곡', '고향역', '고향설' 등 자신이 즐겨 불렀던 대중가요를 선사한다.

이미자는 데뷔 50주년을 기념해 10장의 CD에 101곡을 담은 '이미자 50년, 세상과 함께 부른 나의 노래 101곡'을 발매한다. 이 음반에는 히트곡 70곡과 전통가요 명곡 30곡, 신곡 '내 삶의 이유 있음'을 수록할 예정이다. 김소섭 시인이 노랫말을 쓰고 원로작곡가 장옥조와 그의 딸 장지연이 함께 쓴 곡으로 이미자의 인생을 오롯이 담은 노래다.

티켓 가격 R석 7만 7천원, S석 6만 6천원, A석 5만 5천원.

문의 062-220-0542, 1588-076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미자-패티김 노래스타일 다른 까닭은?

소음인 이미자 <少陰人>

구슬픈 노래 잘 불러

소양인 패티김 <少陽人>

귀족풍 노래 어울려



조 교수는 "얼굴이 작고 이목구비가 오밀조밀한 이미지는 공명감이 작아 서정적이고 슬픈 노래에 적합한 데다 사상의학적으로 입 부위가 발달한 '소음인'이어서 높고 맑은 소리를 낸다"고 밝혔다.

반면 "얼굴이 크고 광대뼈가 돌출된 패티김은 공명감이 크고 깊어 여유롭고 거만한 느낌을 주는 노래를 잘 소화하는 데다 눈매가 날카로운 '소양인'이어서 귀족풍의 노래를 잘 처리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미지는 여성으로 특이하게 복식 호흡을 하면서 단련된 공명과 점액질이 풍부한 성대를 통해 바이브레이션 없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고 패티김은 첼로나 콘트라베이스 같은 저주파 음을 잘 낸다"고도 덧붙였다. /연필뉴스

여가수 이미자와 패티김(사진)의 노래스타일이 원래부터 정해져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충북도립대 생체신호분석연구실 조동욱(61·정보통신과학과) 교수는 얼굴 생김새에 따라 공명강(共鳴腔·공명을 일으키는 몸안의 빈 속)의 크기나 깊이가 달라지는 점에 착안해 이들의 외모와 노래스타일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 작가들 부산서 인기 '짱'

화랑미술제 개막 첫날 컬렉터 이목 사로잡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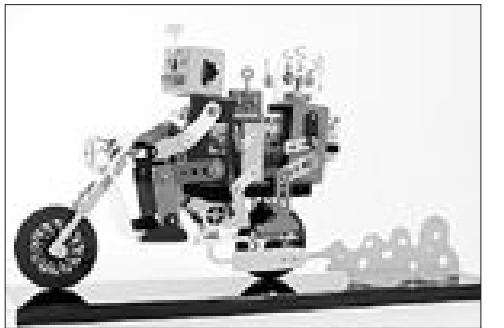
'제27회 화랑미술제-부산'(19~23일)에 참여하고 있는 광주지역 작가들이 개막 첫날 잇따라 작품을 판매하는 등 인기몰이에 나섰다.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백스코 제3전시장에서 19일 개막한 화랑미술제는 국내 80개 화랑에서 3천여 점의 작품을 전시·판매하는 종합미술박람회이다.

이 지역에서는 나인갤러리가 참여해 한희원, 박태후, 박수만, 최재영, 손봉채, 고근호, 신양호, 김진화, 오혜경, 이이남, 주대희, 조근호, 주홍씨 등 13명의 작품을 출품했다.

개막 첫날 박태후, 고근호, 신양호, 오혜경씨가 작품을 판매하는 등 컬렉터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또 주대희씨가 '특별전시(Art in Busan)'에 참



고근호 작 '오토바이'

여해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한편 개막식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 중인 '물방울' 작가 김창열을 비롯해 박서보, 김구립 등 원로 화가들과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 이날 오전 90여 명의 미술애호가들은 서울역에서 출발한 KTX '아트 트레인'을 타고 단체로 화랑미술제에 참가하기도 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역 신진 작가들이 수놓은 '현대 사회'

광주롯데화랑 내달1일까지 초대전

광주롯데화랑은 오는 4월1일까지 이 지역의 젊은 작가들을 발굴해 작품을 선보이는 신진작가초대전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는 '젊은 시선'을 주제로 올해 대학을 졸업한 김용철, 김해린, 서영인, 서유미, 염원선, 윤준영, 인준교, 장성원씨 등 8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김해린씨는 모자이크처럼 깨어진 이미지를 모티브로 독특한 회화작품을 전시하고, 서영인씨는 젊은 세대가 열광하는 브랜드나 현대사회의 이미지를 화폭에 담았다.

또 염원선씨는 아버지 등 주변 인물을 탐박한 초상화로 그려 현대인의 불안한 심리와 정체성에 질문을 던지고, 인준교씨는 소록도를 카메라



서영인 작 '이기'

영글에 담았다.

한편 롯데화랑은 매년 지역 미술대학 졸업생을 초대, 전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062-221-180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최한선씨 세번째 시집

'사랑 그리고 남도' 펴내

"이제는 그만고만 웃자란 것들에 묻힌/고향 뒷산 검푸른 숲/젊은 비를 단출한 식물은 한세월 읽으라는데/머리 위의 실구름 가족 저리 여대 한강이요"(『사랑』 중)

질박한 언어로 '남도'의 정한(情恨)을 노래한 최한선(49) 시인이 세번째 시집 '사랑 그리고 남도'를 펴냈다.

시인은 고향 강진 등 넉넉하고 정겨운 남도의 추억과 풍광을 사랑이라는 주제로 압축



해 '사랑'연작시로 풀여했다. 이외에도 해남 등의 아름다운 풍광을 노래한 시 7편도 한데 묶었다.

최씨는 2001년 '21세기문학'에 시 '구강포 갈매기'로 등단했으며 시집 '화사한 고독' 등을 냈다. 현재는 광주에총 부회장, 계간 '열린시화'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전남도립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태학사·1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movies 인기영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메가박스 슬럼독 밀리어너

메가박스 1관 슬럼독 밀리어너 최고급관

콜롬버스 시네마 푸시

콜롬버스 시네마 1관 푸시

하미 시네마

하미 시네마 1관 뉴욕은 언제나 사랑중

엔터 시네마 작전

엔터 시네마 1관 구세주2

씨너스 전대 왓치맨

씨너스 전대 1관 슬럼독 밀리어너

제일 시네마

제일 시네마 1관 슬픔보다 더슬픈이야기